

연중 제 31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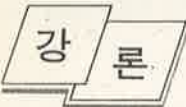
제 1 독서 : 신명 6, 2-6.

제 2 독서 : 히브 7, 23-28

복 음 : 마르 12, 28ac-34

순정이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마르 12, 30-31).



절대 절명의 계명



박진량 신부 / 노송동 천주교회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신명 6, 4-5). 이 기도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혹은 학살 현장에서 자신들의 생명의 최후 순간에 낭송하면서 죽는 것을 보면, 이 기도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들어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마르 12, 29-30)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이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절대 절명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또한 그와 똑같은 비중을 두시면서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역시 구약성서를 인용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만, 첫째와 둘째가는 계명을 한데 묶어 똑같이 강조하신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절명의 계명은 ‘하느님 사랑’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길은 ‘이웃 사랑’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항상 하느님께 대한 생각을 지니며 언제나 믿고 바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마태오복음의 최후 심판에 나오는 의인들처럼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람에게 베풀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느님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당신의 모습을 지니도록 만드셨고 또 그 사람에게 세상의 관리권을 위임하셨다는 사실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느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느님 사랑’이란 것은 “하느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1요한 4, 10). 이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 사람에게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절대 절명의 계명입니다.

“
하느님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
”



여 명



작은 잔치



신 광 연(가브리엘)

시골의 밤은 어둡고 그래서 두려웠다. 캄캄한 밤중에는 10미터도 안되는 변소길에 왜 그리도 무서웠을까. 바람결에 부시시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럴 때면 어른들한테 들었던 귀신얘기를 떠올리며 빨리 방으로 돌아가려고 사력을 다하곤 했다.

그때는 총각귀신, 처녀귀신, 달걀귀신에 도깨비까지 모두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나 사랑방 동네 어른들에게 귀신이 자주 등장하기 마련인 옛날 얘기를 즐겼던 것은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리라.

어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혼이 나간다고 했다. 어느 집에 초상이 나기 전 그 집 지붕 위로 주먹만한 불덩이가 솟아올라 뒷산이나 공동묘지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이같은 혼이나 혼불은 귀신만큼 무섭지는 않았지만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는 매한가지였다. 밝은 대낮에는 볼 수도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 밤 닭이 울기 전에만 나타나는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조상들의 혼백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어른들로부터 저승에서도 항상 집안을 염려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었기에 오히려 친숙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삼사대 조부모님들의 영혼을 모시는 제향날은 집안 어른들이 먼데 분들까지 모두 모여 제를 지내고 정성껏 마련해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단란을 즐기는 작은 잔칫날로 생각되었다.

삼대 할아버지의 제향날은 늦가을 벼를 거둘 무렵이었다. 이날 학교를 파하고 한동네 큰집(宗家)에 가면 사촌 아우들과 함께 마을 뒤 언덕에 가서 떡가루 같이 깨끗한 황토를 퍼다가 대문에서 안마당까지 한줄기를 곱게 뿌리는 일이 나와 뭉이였다. 어른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할아버지의 혼령이 그 위를 밟고 제삿상을 받으러 오신다는 것이었다.

밤 10시쯤부터 대청마루에 정갈하면서도 푸짐한 제삿상을 차려 놓고 자정 무렵 제사를 지내고는 두어 시간 지나서야 마지막 두 번 절을 하고 상을 치웠다. 상 위에 놓여 있는 온갖 과일이며 육포 어물들을 언제쯤 맛보게 되나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어 있을 무렵 어른들이 깨워 일어나서는 눈을 비비며 절을 한 다음 즐거운 음복을 하는 순서였다. 윗대 사촌형제 10여명이 대청마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서로의 근황들을 담소하는 사이 안방에서는 두 분 고모할머니와 집안 동서들이 웃

음꽃을 피웠다.

하도 궁색했던 시절이라 그때 배불리 먹었던 음식맛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사과, 감, 밤 등도 맛이 좋았거니와 단물이 즐줄 흐르고 사근사근했던 배가 과일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다.

조상 기일을 맞는 풍속도 세월 따라 많이 변한 탓으로 요즘은 어렸을 적과 같이 대가족이 모여 제사를 모시는 경우가 드물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작은 잔치같던 소년시절 집안 제사 풍경이 흐릿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가 보다.

유명을 달리하신 지가 오래인 조상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이웃을 사경에서 구해주셨다는 어른은 지금쯤 연옥을 면하셨겠지. 어느 분인가는 아직도 연옥을 방황하고 있거나 앓으실까.

못나고 또 못된 후손들은 살기가 편하면 내 탓이요 어려우면 조상 탓하기가 일쑤지만 저승의 어른들은 이승 떠난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자손이 위기를 맞을 때면 꿈길로 찾아와 조심을 당부하신다.

이처럼 자상하신 어른들은 영혼을 위해 내가 해온 일은 무엇인가. 기껏 1년에 한 번 제사 모시고 두어 번 성묘 하는게 고작이 아닌가. 위령 성월을 맞아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해야될 길이 없다.

‘주여, 이 죄인을 어여삐 여기서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외골수 40년



이 갑진(세자 요한) / 복자 성당

늦가을의 하늘은 높고 청아하며 들녘의 황금빛 벼이 삭은 제 뭉을 다한 듯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하늘에 감사드리고 있다. 겨울을 준비하는 늦가을, 자연도 새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잠시 육신의 낡은 옷을 벗는다. 새봄에 부활하기 위해. 인간도 역시 새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 죽음은 때때로 인간을 나약과 두려움으로 초대하곤 한다.

이갑진(세자 요한·67세) 애령회장, 그는 죽음과 생명의 길목에서 방황하는 이들의 편안한 동반자로서 40년의 외골수 길을 걸어왔다. 그는 3대로 이어온 구교 집안에서 자라나 몸에 배인 신앙으로,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임종하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 당시만 해도 봉사 단체가 없었던 터라 그는 이 필요성을 당시 중앙 성당 주임신부(고 김재덕 주교)와 상의한 후 애령회를 조직하여 전복에서 처음으로 그 발족식을 가졌다. 애령회 활동은 주로 병자, 양로원 방문, 대세, 염과 연도 등으로, 불철주야 그의 손길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쁘게 달려가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하느님 곁으로 인도해주었다. 교우들의 시신을 예수님의 성전

으로 생각하기에 마치 예수님의 몸을 닮듯이 정성을 다해 깨끗하게 성수로 닦아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드린다. 신자뿐 아니라 사제의 시신도 그의 손길이 아니 닦은 이가 없었다.

그는 1년에 50구 정도의 시신을 염하는데 그때마다 시신에서 풍기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기며 감사드린다. 이런 그에게 교회는 몇 번 공로상을 드리려고 했으나 그는 완강히 거부하여 78년, 84년 두 차례만 공로표창장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87년 1월 1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별세한 부인의 죽음으로 망연자실하여 십자가 밑에 쓰러지기도 했고 성령회원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피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예수님께로 향한 신앙 애덕과 청빈의 삶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다.

몇 달 전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그이지만 남은 여생을 더욱더 애령회에 몸바치며 하느님께로 가는 이들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애령회는 많은 신자들과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높고 맑은 늦가을의 하늘과 겹쳐진 벼이삭의 푸근함을 느끼게 한다.

신자들의 소리

가을 인생

김 경 수(스테파노) / 덕진 성당

이제 한해를 거둬들이는 계절이 깊어만 간다. 당신도 나도 그리고 모든 이들이 정성드려 심고 땀 흘려 가꾼 결실들을 거두는 시간이다.

따르릉 이른 아침시간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어댄다. "여기 몇 반 누구 집인데 초상이 났으니 빨리 줘주세요." 다급한 신자의 전화를 받고 나서 장의사에 연락하고 초염준비를 하고 봉사자들에게 연락하고 상가집에 도착, 시신을 정리하여 초염을 한 뒤 상주와 장례일정을 상의하고 돌아와 교우들에게 초상을 알린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

또한 애령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고마움과 존경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우선 선입견으로 죽은 자를 보면 마음부터 섬뜩해짐을 느낀다. 그러나 봉사자들은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곱게 입혀 입관을 하게 된다. 이런 일들이 결코 좋은 환경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봉사하는 이들—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희생하여 봉사하는—의 자세를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특히

외곽 교우나 대세자의 경우는 이런 모습이 이웃 전교에 큰 몫을 한다. 여기에는 가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도 있다. 애써 봉사하는 이들을 장사나 직업인으로 대할 때에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다. 때로는 신자들의 무관심이 더욱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것은 결코 직업이나 장사가 아니며 오로지 봉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봉사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같이 참여하여야 할 일이다. 교통중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고, 죽은 이에게는 정성어린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일들에 전신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애령활동이 이루어질 때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11월은 위령의 달이다. 우리는 먼저 가신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친우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분명하고 가장 엄연한 실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묵상하자. 죽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연히 우리를 찾아온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죽음이 인생의 필연의 운명인 이상 우리는 이 가을에 농부가 땀 흘려 가꾸어온 곡식을 거두듯 지나온 삶을 되돌아 반성하며 가슴 뿌듯한 보람을 거두어보자.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①

죽음, 그 영원한

불교의 가르침 중에 공수래 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다가 허무하게 죽는다는 말이다. 이 말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인류 역사 이래 그 어떠한 영웅호걸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정말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한바탕 꿈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월,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 그리스도인-죽음의 의미

사람은 너나 할것없이 죽음에 직면한다.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죽음의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자신의 죽음을 망각하거나 자신의 삶을 합리화한다.

이들테면 인간의 삶은 육체적 죽음으로 끝난다는 쾌락주의자들이나 자살주의자, '누가 아나? 죽어 보아야지' 하는 식으로 사후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不可知論者), '사람은 죽어도 그 혼은 어떠한 모양으로든 존재할 것이다'는 범신론자(汎神論者)나 윤회론자(輪廻論者), 심령주의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삶이 시작된다는, 곧 죽음은 새삶의 관문이고, 시작임을 믿고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를 통해 인류가 그토록 고민해온, 또 앞으로도 고민할 인간의 가장 근본문제인 죽음을 말끔히 해결해주셨고 그 길을 명확히 제시해주셨다. 주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승리자(1고린



15장)가 되셨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죽음과의 투쟁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 죽음의 5가지 단계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교통사고인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 환자들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자신의 죽음을 단계적인 과정 안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퀴블러 로스(E. Kübler-Ross)가 말하는 임종의 5단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환자는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기를 거부하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는 식으로 왜 하필이면 죽음의 위협이 자신에게 닥쳤는가 하고 부정한다. 이럴 때 환자는 자기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둘째 단계-환자는 의사나 간호원, 병원을 방문하는 사제, 더 나아가 하느님께 분노를 폭발한다. 이럴 경우 '나라도 화가 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라는 태도로 위로하면서 분노가 정상적으로 폭발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단계-체념과 절망이 섞인 단계로 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상적인 준비이다. 이때는 환자들의 애원을 귀담아 들어줌이 필요하다.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영혜 (엘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도건설국 앞
☎ 855-1323, 855-1324

관인 **다예미술학원**
국교부 미술 수강생 모집
원장과 아동 미술 전문 교사 지도
박경화(마리아)
효자동 ☎ 223-8355

삼일 카인테리어
금성 휴대폰·카폰·삐삐
대리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
* 직원 구함
대표 이홍일(마테오)
☎ (0654)42-3108

우리정투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설환(조기리아)
박설환(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앞)
☎ 85-8848

삶을 위하여

넷째 단계-환자는 자신의 병상태를 알게 되고 질문도 한다. 또한 가족과 자신의 삶을 걱정하며 우울 상태에 빠진다. 이때는 슬픔을 같이 나누고 대화를 들어줌이 중요하다.

다섯째 단계-환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비교적 평화를 누린다. 이 단계에서 병자성사를 줌이 이상적일 것이다. 또한 병자를 방문한 사람이나 사목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의 죄의식과 공포감을 덜어주고 죽음 이후에 따르는 영생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주며 주님께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과정이 죽음의 순간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모든 것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고, 여러 단계가 혼합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인의 삶은 죽음과의 투쟁이고, 얼마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 죽은 이들을 위하여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육신을 떠나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천당과 지옥 그리고 연옥에 간다는 것이다. 물론 누가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갔는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죄나 잠벌(暫罰)을 기워 갚기 위해 연옥에 갔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연옥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가 청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가룩하고 경

건한 생각이었다”(2마카 12,45). “그 자신은 불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1고린 3,15). “성령을 거역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마태 12,32)에서처럼 성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교회도 처음부터 연옥의 존재를 선언하고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해왔다. 그래서 오늘도 수십만명의 사제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미사중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도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일이나 탈상 등을 당할 때 가문이나 전통, 지역 풍습에 따라 연옥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일이다.

특별히 교회는 11월을 위령의 달로 제정하고 신자들에게 연옥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여러 가지 은전을 베푼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히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날마다 한 번씩 연옥 영혼들에게만 양보할 수 있는 전대사(全大赦)를 받을 수 있고 다른 날 위와같이 하는 교우들은 한대사(限大赦)를 받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까지 하시면서 온전하게 정화시키신다면 천국은 그 얼마나 경이로운 곳일 것인가!”(시에나의 가타리나).



요심이 (952) 김병오

민자당의 민정계와 공화계가 뭉치는구나

민주계는 대권쟁취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보자...

불이났나? 왜 연기가...

속이 탄다 냉수가 쪼여와!

새로 나온 카세트/CD

맑고 밝은 믿음의 노래, '듀엣 베베'의 '내 탓이오'가 음반, 카세트, CD 동시 출판.
 • 가격: 카세트 3,000원, CD 8,500원 • 구입처: 성마로 보급소 (02)986-1361~4 FAX (02)984-4622 전국 성마로 서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만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제주피정(피정 및 관광)

2박3일 과정, 3박4일 과정
 장소: 제주시 '형제의 집 피정센터'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서울 (02)516-3404, 548-7095
 중부 (0431) 52-8559

가정 농·공업 용수, 목욕탕 용수, 지질조사, 수중펌프 설치
 합미링 전문(고성능 착정기보유)
대한지하수개발공사
 ☎ (0652)222-7750
 천주시 완산구 효자1가 593-2
 김춘산·최규숙(테레사)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황수경(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승렬(엘리아)
 관동로 서울신타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뿌리를 찾아서

순창 성당

— 명당에 뿌리내린 신앙의 요람 —

순수한 무종교적 재래 유교식 예법과 삼강오륜의 도의를 따지는 봉건주의에 젖어 있던 순창지역은 임실, 남원, 곡성, 담양의 중앙에 위치한 농산지대로서 쌍치면 중암리와 학선리(오룡촌)에는 일찌기 복음이 전래되어 1884년경 이전에 공소가 형성되었고 1895년부터 수류 본당에 1925년부터는 신태인 본당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순창읍에 본당 공동체를 일으키고자 하는 남원 본당 박성운(베네딕도) 신부는 1958년 4월 혼배 조당자로 이곳 순창에 우거한 이만준(안드레아)을 찾아 그 뜻을 전하고 전교사 조라우렌시오를 파견, 1959년 성탄절에 4명의 신자가 처음 탄생했고 그 해 5월에 남계리 204번지의 논 17마지기를, 7월에 논 부근의 동산을 각각 매입하였다. 이 동산은 당시의 절경을 자랑하던 명승지로 읍민들은

지방 신령님이 군림하는 복맥(福脈)을 지닌 터라고 불러 이 명승지를 매수함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천주의 성전이 건립될 기지로 매입되어 1960년 3월에 본당으로 설정, 먼저 사무실 겸 식관을 건축하고 동산을 헐어 성당 부지를 정지, 성당과 사제관을 순차적으로 신축하였다. 남원 성당에서 분리된 순창 성당은 1960년-1961년 사이에 무려 800여명의 신자로 성장, 불과 1년 남짓한 결과이었으니 실로 주님의 크신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었으랴! 1대 주임 이상호(아우구스티노) 신부를 비롯 13대째의 본당 신부를 모시면서 순창군 전지역을 관할하고 구역 내 6개 공소를 두고 있는 순창 성당은 동계공소 건물, 중암 공소 강당, 수녀원 신축 등 농촌 본당으로서 어려운 일을 굳은 신앙으로 감내해왔다. 본당의

여러 단체들은 교유의 영성 또는 설립 목적에 따라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며 현재 13대 나춘성 신부를 중심으로 1,600여명의 신자들이 힘을 모아 본당 운영의 경제적 난점 해결, 외곽 교우의 해소, 지역 선교, 신자들의 신심 교육, 본당 교육관 및 사제관 증·개축 등 오늘날도 본당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죽 음

죽음은 받아들이기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현실,
죽음은 우리를 위협하고
슬픔을 안겨주고
깊이도 모를 심연 앞에
우리를 서게 하나이다.
초조하고 적막한 순간,
지상의 삶이 영겁을 향해
소리없이 흘러가는 찰나에
죽음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죽음은 덧없는 이승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옳아가는 문턱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으리이까?
주님, 당신만이
형언할 수 없는
죽음의 신비, 죽음의 고뇌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시나이다.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만
이 마지막 이별의
참의미를,
우리 일생 동안 베풀어주시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리이다.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진복은행 노송지점 옆
(85-8809, 87-4635)
한 봉 석(루가)
김 인 숙(데레사)

우전옥 횃집(효자동)

활어회 · 각종 회 전문
실비 봉사
김 태 웅(베네딕도)
제일여객 앞골목
☎ 224-0588

이 황 주 유 소

이 명 구(베네딕도)
황 연 화(올 리 아)

☎ 856-8998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교 구 소 식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때 : 11월 3일(오늘)
- 곳 : 각 본당에서

❖ 사제 평의회

- 때 : 11월7일(목) 오전10시
- 곳 : 교구청

❖ 축! 견진

- 때 : 11월10일 오전10시30분
- 곳 : 황동 성당

❖ 고 김종택 신부 1주기 추도미사

- 때 : 11월6일(수) 오전10시30분
- 곳 : 중앙 성당

❖ 축! 축성식

- 때 : 11월9일(토) 오후3시
- 곳 : 송학동 성당

❖ 초등부 교리교사 성탄 연수

- 때 : 11월9일-10일
- 곳 : 나바위 성당 교육관

❖ '사랑의 다리' 웰레미사

- 때 : 11월4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대상 : 사랑의 다리 회원과 사회복
지활동을 후원코자 하는 분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1월10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 휘폴라레 모임 젊은이의 하루

- 때 : 11월10일 9시-17시
- 곳 : 단국대 남파기념음악관
- 대상 : 고등학생 이상 미혼 남녀
- 회비 : 1,000원(미사 있음)

❖ 가톨릭 문우회 '시화전'

- 때 : 11월7일(목) 10시-18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가톨릭 문우회 '가을 문학제'

- 때 : 11월9일(토) 오후7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 때 : 11월7일(목) 10시-16시
- 곳 : 덕진 성당
- 강사 : 강인찬 신부
- 준비물 : 목주, 미사도구, 도시락

❖ 군옥지구 연합성가대 연주회

- 때 : 11월10일 오후3시,
저녁 7시30분
- 곳 : 군산 시민 문화회관

❖ 문규현 신부와 구속 방문 인사를 위한 기도회

- 때 : 11월11일(월) 오후7시30분
- 곳 : 군산 팔마 성당

❖ 주소 변경

- 아트란타 성당 :
Korean Catholic Church
6003 Buford Hwy,
Doraville Georgia 30340
- 전화번호 : 사무실(404)455-1380
사제관 (404)455-4244
FAX (404)455-4262

성소모임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11월10일 오후1시
- 곳 : 본원 (0652)84-3231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11월10일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252-9567

❖ 한국외방선교수녀회(피정)

- 때 : 11월9일 16시-10일 17시
- 곳 : 본원 (051)514-1773
- 대상 : 수도생활과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 회비 : 6,000원(선착순 50명)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밥-생명의 양식

밥은 내 것 네 것이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하늘의 양식이며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받아 완성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밥에 탈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젠 '밥상'이 아닌 '독상'으로 변했다. 각종 농산물에 화학비료의 사용, 고독성 농약의 살포 등으로 마음놓고 어느 것 하나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오

늘날 먹거리의 70%가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이라는데 생명의 양식이어야 할 밥이 오히려 독이 된 지금, 햇빛과 별빛, 단비와 바람결, 땅속 양분과 미생물들의 협동으로 만들어지던 생명의 밥, 이 밥의 죽음은 곧 자연의 죽음이며 생명의 죽음이다. 공기와 땅과 물과 태양, 우주만물의 생명이 들어 있는 밥을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너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업임을 한시도 잊지 말자.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또

☎ 84-2628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디또)

혼수(회갑) 옷감, 혼수이불
맞춤, 약혼복, 커튼

서울주단

보드라운 이불 전주대리점
(중앙 성당 옆)

김 완 준(안토니오)

박 윤 화(베로니카)

☎ 252-0453, 77-5095

사원모집

1. 이사대우 0명
2. 일반직 0명
- 서류 : 자필 이력서 사진1매
- 전형 :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 기간 : 1991년 11월 4-8일



鮮宇觀光

이종길(요한) ☎(0652)87-9797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일광대 버스

승 · 하차장 앞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 민 구(프란치스코)

유 해 미(마리아)

효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 11월은 위령성월: 연유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 오늘은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미사시간 변경: 5일부터 저녁미사 7시로
 - 가정방문: 5일-중노1가1번 6일-중노1가2번 7일-중노1가3번
 - 울뜨레아: 오늘 후7시30분
 - 자모회: 5일 미사 후
 - 성심회 월례회: 6일 어머니미사 후
 - 반희장 모임: 7일 전10시30분
 - 성시간: 7일 후7시
 - 금주침소: 중노1가7.8번 차주침소: 중노1가9.10번
- 지난해 봉헌금: 973,860원 □ 교무금: 892,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신앙강좌: 12일 오전9:30~오후4:30분 대상-전신자 강사-이 아벨라의 데레사 2. 꾸리아: 10일 오후2시
 - 성체강좌: 7일 저녁미사 후
 - 회합: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건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5일 오전10시 ④말알회-6일 오후6:30분 ⑤자모회-7일 오전10시 ⑥여성분과회-9일 오전10시 ⑦요셉회-10일 공식미사 후 ⑧청년회-10일 저녁미사 후 "축" 결혼: 10일 12시 신랑-황요셉 신부-이글라라 13시 신랑-임프란치스코 신부-허모니카
- 금주전례: 최육남 독서-천철범씨부부 봉헌-박봉규씨가족
차주전례: 오교성 독서-정병선씨부부 봉헌-신재근씨가족
성당침소: (9일) 황금궁전, 성모성년
- 지난해 봉헌금: 529,210원 □ 교무금: 1,312,6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암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성서읽기: I 디모테오 전체
 - 봉성체: 5일(화) 4.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오늘 미사중
 - 교무금납부의날: 매일 첫주(오늘) 올해도 열매가 남아있었습니다.
 - 성령세미나: 18일~23일까지. 매일 저녁 7:00. 전신자. 회비-천원
 - 성지순례: 학생 10일(중·고) 일반-13일, 오전8:00출발
 - 침소봉사: 천주의 모친
 - 금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양대환 독서②이석남 봉헌-강문욱. 황옥선씨 부부
 - 차주전례: 해설-여경진 독서①최원규 독서②김금자 봉헌-서병철, 김단오씨 부부
- 지난해 봉헌금: 202,900원 □ 교무금: 12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연중제31주일! (11월은 위령성월)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후(반장님들은 전원 참석바람) ②사목회-11월6일(수) 저녁미사후 ③자모회-11월6일(수)12시, (참은 참석바람)
 - 모임: ①울뜨레아-11월3일(일) 야외모임(전원 참석바람)
 - 알림: ①각분과부장님께서는 92년도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세요. (계획서 제출치않은 부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인정함) ②91년도 연말이 되었는데도 교무금을 전혀 내지 않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 유아세례자가 있는 부모님들은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 지난해 봉헌금: 622,300원 □ 교무금: 66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꾸리아: 공식미사 후
 - 구역장 반장모임: 6일(수) 오후3시
 - 구역미사: 5구역(신촌, 금호) 4반미사: 6일(수요일) 오후8시
 - 건진자고백성사: 화. 목요일 저녁미사 후
 - 건진교리: 9일(토) 오후7시30분(건진자만 참여, 서류미비자 원 결바람)
 - 침소봉사: 안행동, 효자마을
- 지난해 봉헌금: 589,780원 □ 교무금: 627,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성전보수헌금바람. 2. 「전동100년」 화보집 판매: 권당20,000원
 - 금주: ①체속글라라형제회(오후1시30분) ②청소년종합예술제(성심여고강당, 오전9시30분) ③울뜨레아 성지순례(철두산) ④9월 영제자 킷고백(미사중에)
 - 성체강좌 및 조배: 7일(목) 오전10시
 - 유아세례: 9일(토) 오후3시, 사무실에 신청
 - 차주: ①자모회(오전10시) ②사목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봉사자모임(오후7시) ④일치의모후Cu(오후2시)
- 금주보수비헌금액: 316,000원 헌제모금총액: 250,982,801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 * 예비자 입교식: 10일 공식미사 중, L.M단원은 1인1도**
- 소복도 방문: 10일 전7시(시간임수), 목주. 성가책 준비
 - 초등부 교사 성탄연수: 9일~10일, 화산 나바위성지
 - 구역 반희장 연수회: 5일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 제대회 월례미사: 8일 후3시, 가입 희망자 환영 합니다.
 - 반미사: 5일 후3시 4-1, 후8시 4-2,3, 7일 후8시 5-1, 8일 전10시30분 13-1, 후8시 5-2.
 - 이봉연(형제)가정 축성식: 10일 12시, 상임위원은 동반바람
 - 가정미사: 오늘 후7시30분 주공101동 1101호 라우슬라
 - 회의: 성심부녀회-6일 어머니미사 후, 월말 참석 바랍니다.
 - 본당은 우리들의 가정, 교구급 신축헌금은 월별로 봉헌 봉헌
- 지난해 봉헌금: 673,810원 □ 교무금: 1,152,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 사목회: 오늘미사 후 2. 성모회·청년회: 다음주미사 후
- 예비자 교리반: 매주 일요일 오전9시
- 유아세례: 10일(일)미사후 대상-국교생2학년까지(사무실에 신청)
- 가정방문: 6일(수)오전-성원골드 오후-한양운남APT 7일(목)오후-신일APT 8일(금)오후-이사는 가정
- 주일학교 성지순례: 오늘-천호·나바위 성지.
- 본당에 이사오시거나 이사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주시시오
- 침소봉사: 자비의 모후Pr
- 금주전례: 최경순 독서·봉헌: 민혜리, 유대희
-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정명자, 강병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해미성지순례: 다음 주 11.10(일) 06:30분 집결 07시 출발 (목화아파트앞) ※ 미사준비: 목주 점심 간식 ※ 시간임수 ※ 순교정신을 함양하는 하루가 되도록 경건한 자세로!
 - 11.10(일) 본당 미사시간 안내: ①06시 ②11:00 ③후7시 ※ 0:30미사는 없음
 -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①일10:40 ②목 후7:30 ③금10:4
 - ※ 예비자를 적극 인도합니다.
 - 건진 집중교리: 6.7.8.13.14.15일 건진성사 16(토) 후7시 미사 중에 5. 모임안내: ①안나회-오늘 11시미사 후 ②애령회정기 모임-다음주 11시미사 후(지하교육관) 6.주일학교에 부모님 관심을 7. 성시간: 매주 화요일 후7시(성체조배실) 8. 축! : 고생 지구 체육대회: 효자동 3등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공식미사 후 3. 제대회: 4(월) 9시미사 후 4. 성가대 단합대회: 5(화) 오전8:30모악산
 - 심도, 자모회 단합대회: 8(금) 오전8:30내장사-백양사
 - 공소미사: 8(금) 오후2시독배, 저녁 미사
 - 가정방문: 6(수)송정 7(목)남양효자
 - 서울침빛성령봉사회 주최 성령세미나 개최: 12(화)~15(금): 후7시~10시 참가비: 5,000원 다음주까지 신청바람.
 - 차주모임: 울뜨레아 지난해 신축헌금봉헌액: 90,000원
 - 금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이준영 ②손선희 기도①박장춘 ②임혜선
 - 차주전례: 해설-임장수 독서①김경철 ②윤규민 기도①이태영 ②박희수
- 지난해 봉헌금: 914,450원 □ 교무금: 1,313,000원
□ 나눔헌금: 476,620원